

무재해 · 무사고!

현대건설(주) 도곡빌라트신축공사 현장

장 마비에 소낙비까지 여름은 지루하기만 하더니 현대건설(주) 도곡동 빌라트 현장을 방문하는 날, 하늘은 맑고 바람마저 선선해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매봉 전철역에서 현대빌라 건물표지판이 쓰여진 출구로 나오면 간간이 보이는 산 앞으로 빼곡히 솟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바로 도곡동 빌라 공사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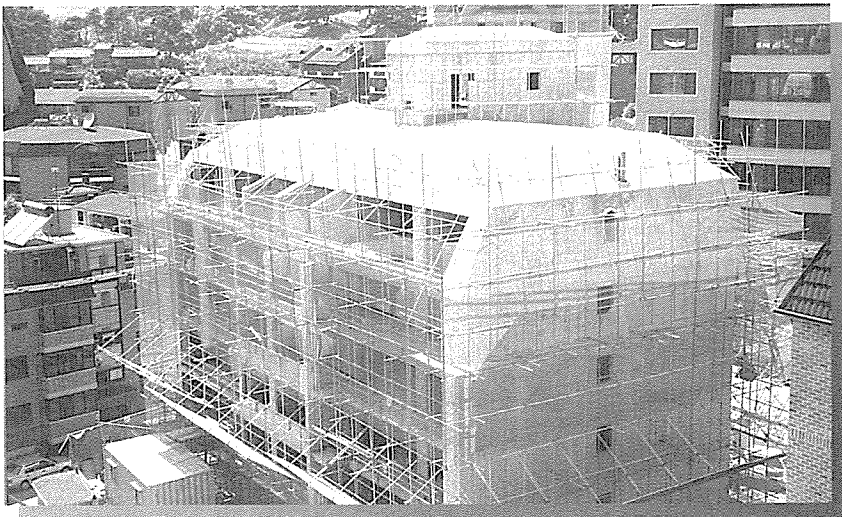
지하 현장 사무실 입구를 찾기 위해 건물 외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공사 마무리 작업에 임하느라 정신이 없다.

사무실을 찾아 인사를 나누었을 때 누가 먼

저랄 것 없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는 것에 편암함을 느낄 수 있다. 박상운 소장을 비롯해 현장의 임직원들은 총 9명, 모두 한가죽처럼 화목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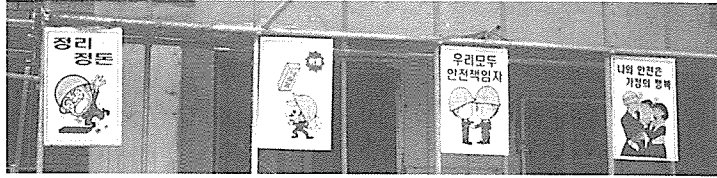
1995년 5월 20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98년 9월 20일 총완공인 현대건설(주) 도곡동 빌라트 현장은 총 6개동으로 1-5동은 이미 완공된 상태로 6동의 내부마감공사가 한창이었고 마지막 조경공사를 남겨두고 있다. 총공사비는 237억 1500만원이고 대지면적 6170.15㎡, 건축면적 3129.8㎡, 총 83세대로 이루어졌다.

이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본사의 안전관리 지침과 함께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 도곡동 빌라 제6동 공사 전경

공사현장 안전표지판 ▶



본사에서는 전현장 무재해 달성과 환경친화 현장구축 및 효율적인 ISO 14001 사후심사를 위하여 현대건설 안전프로그램인 SAFECO 21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8 모기업, 협력업체 직원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2월부터 4월까지 전현장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모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각 현장마다 안전 실명제를 추진하고 내실있는 안전모화 조기정착과 각현장별 안전관리 월례회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업무 교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본사에서 현장에 안전관리 순회점검을 실시해 이 때 점검사항에서 조금이라도 적발이 되면 지시, 시정조치 등이 내려지고 벌점도 받게 되어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에 힘입어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직원 및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관리체제’로 유도하고 있으며 앗차사고 사례 발표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 무재해 운동실시 및 신규자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작업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사고예방에 큰 몫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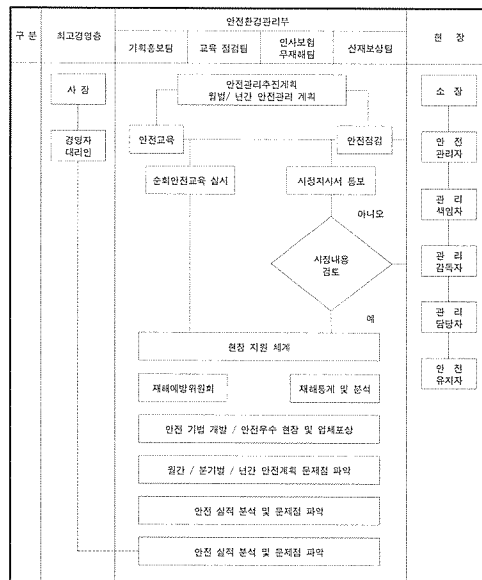
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적용되어 신규 작업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안전관리업무의 실제 책임자인 안전관리자

최재철 주임을 만나 보았다. 현장에서 무재해, 무사고의 전적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투철한 사명감의 사나이,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한 지 4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은 8년전, 그가 일본유학을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일을 천직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 또한 그를 따를 자가 없다. 엉뚱하고 눈에 띄이지 않는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예측불허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현장에서 붙은 별명이 일명 두더지라는데.

이 현장 최고 자랑거리가 무엇이나고 최주임께 물었을 때 “무사고”라고 힘있는 어조로 대답한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정말로 3년 3개월

▼ 본사안전관리지침 업무체제도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장면

공사기간 동안 아주 작은 사고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단호히 “예”라고 대답한다. 실제로 이 현장은 1997년 7월 11일에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배달성장’을 수여했다. 게다가 최주임은 도곡동 현장에 근무하면서 무재해1배달성과 전현장 무재해달성 공로로 본사로부터 표창장을 두개씩이나 받은 경력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는 현장에서 사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가 기울이는 노력은 3년 3개월 동안의 공사기간 동안 여지껏 단 한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 일과 스포츠 밖에 몰라 서른이 넘도록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자아내는 것에서 아직 때문지 않은 순수한 성품을 읽을 수 있다. 이상호 과장은 “안전에는 걱정 없지만 탈출각이 걱정스러운 노총각”이라며 진심으로 최주임을 걱정해 준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라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하는 이상호 과장, 소장을 보좌하고 직원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임직원들간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힘을 쓴다는 그, 업무에 있어서는 칼같이 냉철하고 확실하다. 여지껏 잘해 온 것처럼 공사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



▲ 현장 임직원들

겠다고.

현장의 총책임자 박상운 소장이 현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유의강’이다. 건설현장은 인력과 자재 및 공정이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므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강력하고 냉철한 추진력이 필요하고, 반면에 임직원들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가족같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가족이라는 것은 보너스를 많이 주고 회식을 자주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가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인간적으로 감싸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박소장의 신념이다.

3년3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사고 한 번 없었다는 것은 현장 책임자인 소장만 잘해서도 안되고 안전관리자의 힘있는 목소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장의 임직원들과 근로자들 모두 안전에 힘쓴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도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오늘도 현대건설(주) 도곡동 빌라트 현장 임직원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시공의 막바지 작업을 위해 “무사고·무재해!”라는 신념으로 사업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

취재 / 정미정